Commodity

미국의 희토류 투자 확대, 당장 공급 과잉은 없다

Commodity Analyst 최진영
jinyoing.choi@daishin.com

- 희토류 협정 체결 직전인 미중, 그럼에도 밸류체인 투자 강화하겠단 미국
- 중국, 계속된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중국 영향력↓ 공급 과잉 가능성↑
- 그러나 문제는 투자-생산까지의 긴 리드 타임, 여전히 낙관적일 희토류

희토류 협정 체결 직전인 미중, 그럼에도 밸류체인 투자 강화하겠단 베센트

11월 16일,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재 중국 측과 희토류 광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추수감사절(11/27) 이전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밝혔다. 앞서 미중 정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(+100%)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.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희토류 문제가 일단락되는 순간이다.

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소지가 있다.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광물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동맹국과 희토류 공급망을 재구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.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희토류 채굴-정·제련-가공 밸류체인을 구축할 목적으로 MP머티리얼즈에 4억달러 투자한데 이어 11월에는 희토류 자석 생산 스타트업에 1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 이뿐만 아니다. 사우디 광산 기업 마덴과 정·제련-가공 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호주의 채굴-정·제련 사업에 3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 일본과 해외 채굴-가공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, 태국, 말레이시아와는 신규 매장지에 대한 우선 투자-채굴-구매 권리를 갖는 MOU를 체결했다. 탈중국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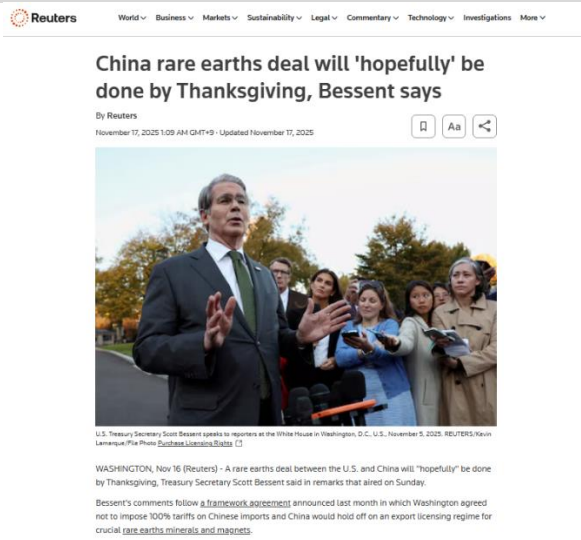
중국, 계속된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중국의 영향력↓ 공급 과잉 가능성↑

위 조치는 미래 공급 과잉을 유발할 요인이다.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과학원(CAS)은 2024년 국유화 조치로 중국 내 희토류 광산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신규 공급자가 계속 진입한다면 2035년 시장 점유율이 기존 62%에서 28%로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. 과거 사례에서 후과를 찾을 수 있다. 2010년 9월 중국 정부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.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호주의 희토류 생산 기업 Lynas에 2.3억달러 대출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2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. 그 결과 생산된 중희토 중 65%를 조달 받게 됐다. 2011년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92%를 차지했던 중국이 60%대로 추락하게 된 시발점이다.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밸류체인 투자가 재강화된다면 미래 공급 과잉은 불가피하다.

그러나 문제는 투자-생산까지의 긴 리드 타임, 여전히 낙관적일 희토류

다만, 이것이 당장의 공급 과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Rainbow Rare Earths의 조지 베넷 CEO는 아프리카 광업 투자 포럼에서 희토류 탐사/개발부터 생산까지는 15~20년(광산 개발 인허가: 3~5년 / 광산 인프라 구축: 2~4년 / 가공 시설: 5~8년) 가량 소요된다며 당장 공급 과잉은 제한적이라 강조했다. 일본 역시 투자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7~8년 소요됐다. 오늘날 투자는 미래 공급 과잉을 유발하지만 지금을 의미하지 않는다. 중국의 미국향 수출은 재개됐지만 어디까지나 12개월 유예일 뿐이며 내년 정치 이벤트 종료 이후 재충돌할 수 있다. 투자-생산까지의 리드 타임과 미중 체제 경쟁이 영원하다는 점에서 희토류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.

그림 1. 베센트 미 재무장관, 추수감사절 이전에 중국산 희토류 문제 합의될 것



Reuters

World Business Markets Sustainability Legal Commentary Technology Investigations More

China rare earths deal will 'hopefully' be done by Thanksgiving, Bessent says

By Reuters

November 17, 2025 1:09 AM GMT+9 · Updated November 17, 20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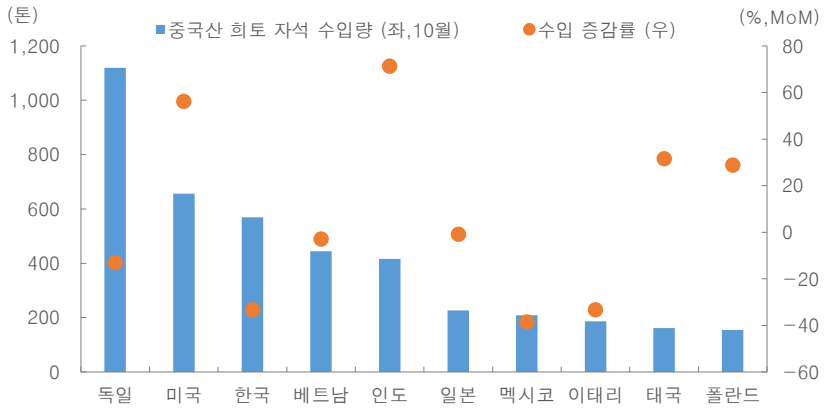
U.S.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peaks to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, D.C., U.S., November 5, 2025. REUTERS/Kevin Lamarque/File Photo Purchase Licensing Rights

WASHINGTON, Nov 16 (Reuters) - A rare earths deal between the U.S. and China will "hopefully" be done by Thanksgiving,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aid in remarks that aired on Sunday.

Bessent's comments follow a framework agreement announced last month in which Washington agreed not to impose 100% tariffs on Chinese imports and China would hold off on an export licensing regime for crucial rare earths minerals and magnets.

자료: Reuters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중국의 희토류/희토류 자석 수출 문제 해결 시 불확실성 진정 가능



자료: 중국통계국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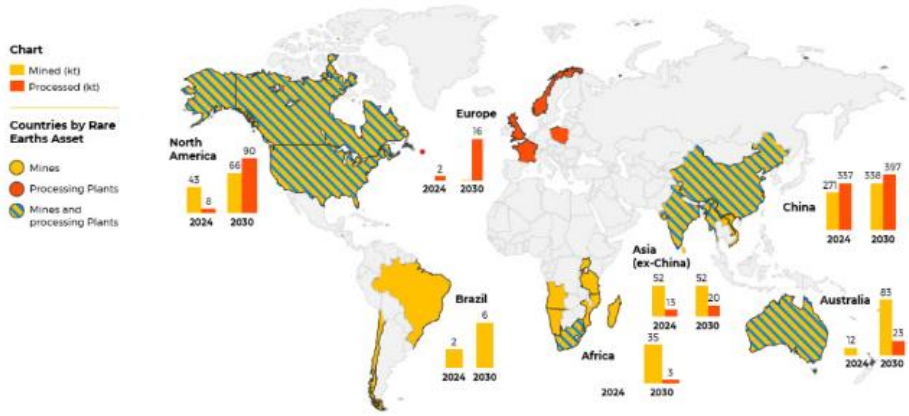
그림 3.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양국 간의 희토류 문제는 언제든 재발 가능

자료: Bloomber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4. 이를 알기에 미국은 탈중국 행보 빠르게 가져갈 것이라 선언

자료: F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5. 호주, 일본, 사우디, 태국 등 해외 동맹국에 희토류 밸류체인 투자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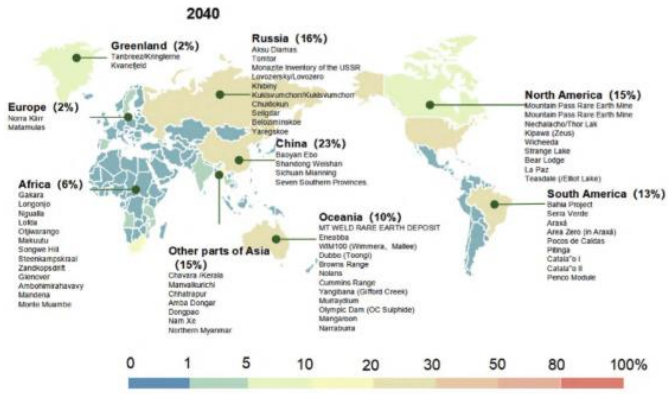
자료: Benchmark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표1. 미국 내에도 희토류 채굴–정 · 제련–가공–리사이클링 전반 탈중국 시도

구분	광산	정 · 제련				가공	
	채굴	화합물	분리		희토금속	합금	영구자석
			경희토	중희토			
중국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
미국	가동 중	개발 단계	개발 단계	개발 단계	중단	중단	개발 단계
호주	가동 중	테스트					
영국					가동 중	가동 중	
에스토니아			가동 중				
독일							가동 중
프랑스			가동 중	가동 중			
말레이시아		가동 중	가동 중				
미얀마	가동 중	가동 중					
베트남				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
부룬디	가동 중						
일본			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
러시아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			
인도	가동 중	가동 중	가동 중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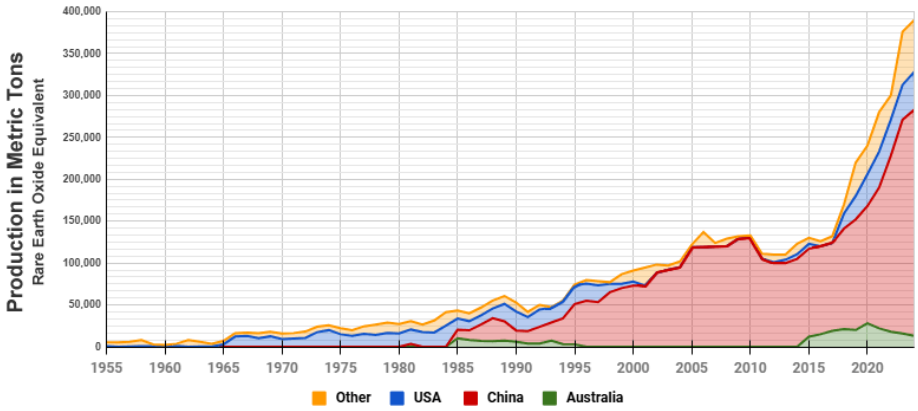
자료: The White House, CTSE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6. **중국과학원(CAS) 주장처럼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미래 공급 과잉 유발 요인**



자료: CAS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7. **다만, 문제는 밸류체인 설비 갖추기 까지 긴 시차, 당장 공급 과잉은 제한적**



자료: USGS, Geology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 최진영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